

一傳真心能道情大則依教不勞形有緣人  
 聖友樂用雙眉安弟兄  
 聖了還同大悟人無心談空言空若然前  
 金尊尚此時古有幾人  
 大法眼權語因信看無須  
 今人言古教不免心中隨欲免心中開  
 百教一古德德曰無溫空空處深行  
 際准經音尼天定證無生  
 又善欲三正性先為法花之形空何素有  
 殺訟爾登明性係益立本道  
 火後不出還燒木香因情起如除書  
 名爲智智教入於大思議  
 卷七種時當勤諸人莫空佛法徒自無心  
 人事時難說錢銀人或三三五不是一  
 卷云老僧修你入道言  
 百靈和尚抄錄佛經直道心謹要卷之二  
 宣光七年丁巳七月日 濟州教外重德  
 寺鐘堂印施

# 직지여 영원하라

충북 청주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유네스코 직지상제정의 참 뜻을 되새기기 위한 '시민 경축 및 직지세계화 선포식'을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인류의 자량인 금속활자의 창조정신을 청주의 대표적 세계화 비전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이원종 충북지사, 김천호 충북도교육감, 한대수 청주시장, 노영민 변재일 강혜숙 국회의원, 신방웅 충북대총장, 임윤배 청주대총장, 정두영 청주교육대총

장, 김한욱 국가기록원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등 내빈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축하 한마당으로 신명풍물단의 대북공연과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기념식, 세계화 비전 선포, 성공기원 비나리 순으로 진행됐다.



직지 세계화 선포식에서 귀빈들이 점화버튼을 누르고 있다. (아래 오른쪽은 한대수 시장과 홍보대사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 인류여 영원하라

고인쇄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직지의 발견부터 직지상 제정과 정까지의 영상물 상영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에바하네부트 벤츠 구텐베르크박물관장, 아비드 유네스코 사무총장, 직지를 발견한 박병선박사의 동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노무현 대통령

은 영상축하메시지에서 “청와대 내에도 직지 동판이 보관되어있으며 앞으로 직지의 세계화를 통해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자”고 강조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허 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문화팀장 등 관계자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영

화감독 정지영, 텔런트 박인환, 아나운서 김병찬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어 한대수 청주시장을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민, 모범택시운전사 등 시민 각계각층 25명이 참여해 직지 세계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 유네스코의 직지상



유네스코는 2004년 4월28일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최초 시상제도를 채택하면서 그 상의 이름을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이름을 빌어 직지상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직지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됨은 물론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층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직지상은 세계기록유산의 보존 활용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한 이 분야 최초의 상으로 세계기록유산분야 '노벨상'으로 평가된다.

직지상의 시상은 2005년부터 2년마다 이루어지며 청주시가 지정하는 '직지의 날'에 청주시 또는 프랑스 파리에서 성대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에게 미화 3만달러의 상금이 전달된다.

**'직지'의 고향 청주에 위치한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위치:충북청주시흥덕구운천동866  
전화:043-269-0556  
팩스:043-220-6757**

## 직지세계화 선언문

우리는 오늘, 지난 천년의 역사와 오는 천년의 희망을 모아 여기 서 있다. 천 개의 고원에 서서 드넓은 세상, 광활한 우주를 향하여 대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의 직지 세계화 선언은 청주를 세계수준의 학습문화도시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직지 세계화 선언의 또 다른 목표는 세계문명사의 빛나는 자산인 직지의 가치를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재창출하는 것이다.

직지는 1377년 고려의 청주에서 인쇄되어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고귀한 보물은 1972년 이역만리 파리에서 발견되었고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는 1984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청주시민과 행정기관의 노력 그리고 학계의 연구활동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직지는 2001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었는가 하면 2004년 유네스코 직지상(Jikji Prize)도 제정되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직지의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는 일이 필요하다.

고려인들이 정성의 불꽃을 지펴 만든 직지 금속활자는 우수한 표현매체이면서 중요한 문화자본이다. 직지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창조적 가치, 지식전달의 교육적 가치, 세계문명사적인 가치, 정보의 공유와 확산의 가치, 예술 문화적 가치와 아울러서 우리 민족의 뛰어난 역량이 표현된 보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금속활자의 가치를 잘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사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반성

의 토대에서 직지의 정신과 의미를 전 세계로 발신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인류문명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직지는 청주인 만의 자산이 아니라 한국인 모두, 그리고 세계시민들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직지의 세계화와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제교류와 같은 문화전략, 세계 순회 전시와 홍보전략, 직지문화지구 조성 과 같은 산업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획일과 정치적 패권으로서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패권과 독점으로서의 직지가 아닌 상생과 조화의 직지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서양 문명의 귀중한 자산인 구텐베르크 활자를 존중하는 한편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진정성을 존경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일본, 에티오피아, 러시아, 미국, 이라크 등 여러 나라의 문화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문명사를 열어갈 것을 제안한다.

서자여사(逝者如斯)라, 저 하늘의 광음은 우리의 결의를 광활한 우주에 전파하리니, 이 어찌 현결차지 아니한가! 대 항해를 축복하는 하늘천사의 춤도 아름답다. 은하수 찬란한 영원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직지여 영원하라, 인류여 영원하라!"

여기 지구촌, 아시아의 한국 청주에서 우주에 발신하는 이 선언은 과거 인류에 대한 존경이며 미래 인류와의 대화이다. 세계시민과 한국인 모두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뜻을 모아 오늘 희망과 사랑으로 직지 세계화를 선언한다.